

투데이 칼럼

운명을 바꾸는 스피치 생활

소원이 깃든 자신과의 말은 성공과 행복, 건강까지도 해결하는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는 '말 대로 되는 세상'이란 말을 자주 실감하면서 살고 있는데 윌리엄 제임스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는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는 이론을 일찍이 발표하였다.

스피치(Speech)학에서 말의 능력을 중요시 하듯이 자신의 운명을 바꾸고 성공하여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말투를 알아보자.

첫째, 당연한 말 당연한 일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스피치 생활에서 상대방이 이야기하기 편하도록 웃는 얼굴로 듣고 맞장구를 치는 것은 상대에 대한 예의이고 당연한 기본 상식이다. 이런 당연한 말과 행동을 하지 않으면서 성공이나 행복을 바라는 안 되고 작은 약속, 뻔한 일도 실천해 보자.

둘째, 마음을 담아 진정된 스피치를 해야 한다. 언위심성(言爲心聲)이라는 사자성이 있는데 '말은 화려한

어휘와 화려한 화술로 치장하는 것 보다 말 속에 진심이 담긴 말이다.' 라는 의미이다. 다산 정약용 선생님께서도 말은 '마음의 소리'라고 말씀하셨다.

말에 감동을 받는 것과 공감하는 것은 "청산유수(靑山流水)" 같이 외워서 하는 말이 아닌 그 사람의 마음이 담겨있는 진정된 대화이다.

말을 할 때 중요한 것은 유창함이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결혼식에서 신부의 아버지가 "저의 딸이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말을 힘들고 더듬거리도 참석자들은 감동을 받는다.

셋째,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투

로 생활화 한다. 부자가 되고 호감 받는 사람이 되고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원만한 인간관계는 필수 조건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스피치(Speech) 기법'을 터득하면 된다.

인간관계는 결국 말을 주고받는 좋은 스피치 생활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사람은 사랑 받을 만한 말을 하는 것이며, 부담주지 않고 부드럽고 긍정적인 말을 입에 달고 살아보자.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을 고스란히 드러내기 때문이다.

오늘부터 모르는 사람이 묵묵히 청소를 하고 있다면 내가 먼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니

다'라고 인사해 보자, 상대가 얼마나 감동을 받겠는가?

말은 매력적으로 하면 곧 바로 운세가 좋아지고 부(富)도 따라온다.

매력적인 말은 사랑이 담긴 밝은 말, 배려가 담겨 있는 말, 기분 좋아질 만한 말, 격려의 말, 명쾌하고 듣기 좋은 말, 유머스런 말 등이다. 돈 안들이고 배움이 없어도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무재칠시(無財七施)'라는 말이 있다. 그 중에서 '안시(眼視)' 열굴로, '언시(言視)' 말로 베풀어라 는 말도 있다.

넷째, 사람을 기쁘게 하는 칭찬의 말을 한다.

상대를 만났을 때 '뚝뚝하다, 대단하다, 최고여! 믿음직스럽다' 등의 말을 해보자. 주위 사람들이 결국 나를 따르고 내 편이 된다.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 주면 주위 사람이나 신계서도 가만히 있지 않고 복을 줄 것이다.

이 세상에는 스피치로 해결 안 될 일이 없을 정도로 무한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가?

운명을 바꾸어 행복하고 싶다면 생활의 필수인 스피치 기법을 터득하고 실천하면 된다.



김 양 옥

전주교대 평생교육원 전담교수

사설

전화 금융사기 만연

신종 사기 피해자들이 여전히 다. 어느 60대 남성은 모 결제 대행사로부터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로또 정보 업체에 떼인 돈 1백20만 원을 대신 돌려주겠다 는 것이다. 정부 시정 조치 사항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해준다고 했다.

대행사 측은 먼저 업체 지분을 확보해야 한다며 돈을 요구했고 남성은 8천여만 원을 빌려 입금했다. 그런데 대행사가 갑자기 연락을 끊는 바람에 목돈을 잃었다.

30대 남성은 노래 음원 사이트 운영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를 받았다.

음원을 구매하면, 30%의 수익을 더 얹어준다는 말에 속아, 3천5백만 원을 송금했지만 돌려받지 못했다.

다른 30대 여성은 온라인 쇼핑몰에 구입 후기만 남기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문자를 받았고, 쇼핑몰 계좌로 대금을 보낸 뒤 후기를 쓰면, 월급에 수익금 10%까지 더해준다는 것

이다. 처음에는 현금을 쉽게 내주더니 그 다음부터는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바뀌었다며 결국, 입금을 증용했다. 현금이 없다고 했더니 그럼 돈 못 받는다 고 했다. 못 받은 돈은 420만 원 정도다.

피해자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무언가에 흥난 듯 한번 빠지면 절대 헤어 나올 수 없다는 이른바 '개미지옥' 체험을 했다는 것이다. 사기범들이 처음에는 소액의 수익으로 꼬드긴다.

그 뒤 분전을 건지려는 심리를 이용해 목돈을 한꺼번에 가로챈다. 실제 전화금융사기 피해자 4명 중 1명은 골든타일 30분 안에 사기 행각을 깨닫지 못한다고 한다.

전화금융 사기범들은 25분보다 한 명씩 속여 천만 원 넘는 돈을 뜯어 간다. 무조건 의심하고 곧바로 끊고, 거듭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 돈을 요구하는 건 일단 사기다. 세상에 공짜 돈은 없다.

재활용품 분리 배출

전북 장수군이 최근 '올바른 분리배출과 종량제 봉투 사용 홍보 캠페인'을 적극 실시한다고 밝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자원순환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종량제 봉투 사용 문화 정착을 위해 진행했다.

읍·면 이장 회의를 통한 적정 분리배출 홍보 활동도 산서면을 마지막으로 홍보 일정을 마무리했다. 장수군은 향후 마을 단위로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통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자원순환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장수군은 "청정고장, 깨끗한 장수 만들기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해 △분리배출 우수마을 포상 △무단투기 집중 단속 △분리배출 시설 확충 등 깨끗한 장수를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갈수록 '재활용품 분리배출 생활 캠페인'이 절실하다. 자원 순환과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분리배출에 대한 정확한 개념과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재활용품으로 만든 장바구니도 배부해야 한다.

재활용품 수거 보상 제도에 대해서도 안내가 필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 주민들의 참여가 중요하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홍보 활동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

재활용품 수집 유가보상제는 투명 페트병과 알루미늄 캔, 폐건전지, 종이 팩 등 재활용품을 품목별 단가에 따라 현물(종량제봉투)로 보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주민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사회단체와 연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치는 것도 필요하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 행사를 열어 자라나는 미래 세대와 재활용품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순환 경제 실현이란 가치를 공유해야 한다. '재활용품 수거 유가보상제'부터 실시하기 바란다.

사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달라이 라마 도착 기다리는 망명 티베트인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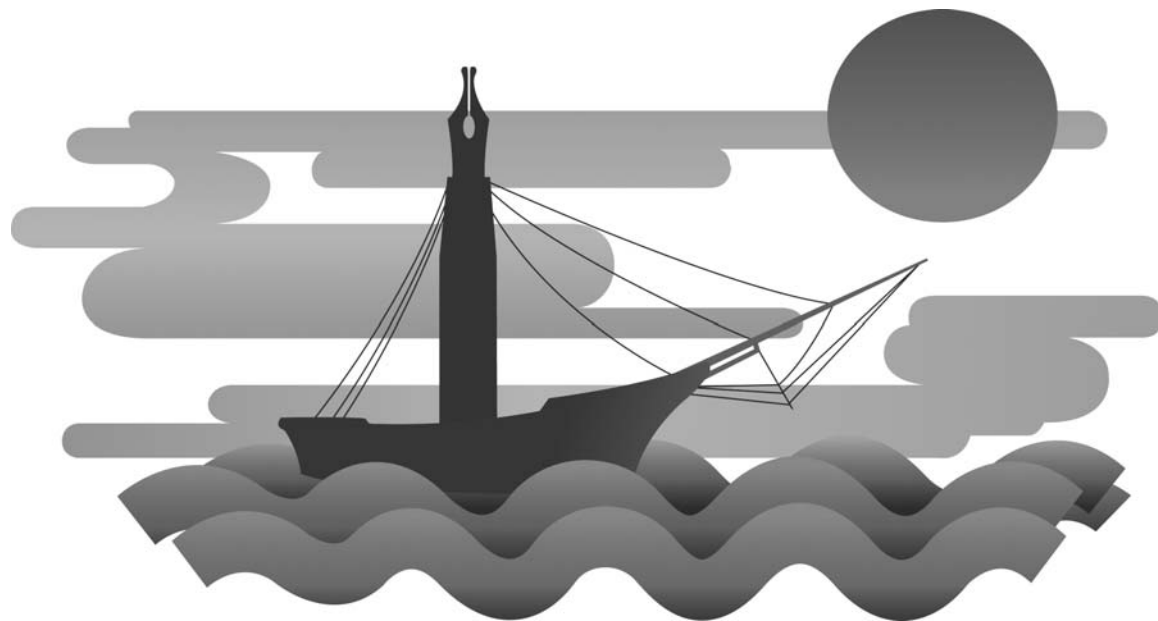
28일(현지시각) 인도 디람살라에서 망명 티베트인들이 의식용 스카프를 들고 그들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달라이 라마는 지난 6월 미국 뉴욕에서 무릎 수술을 받고 티베트 망명정부로 돌아왔다.

기념 촬영하는 패럴림픽 성화 봉송 주자들



27일(현지시각) 프랑스 퐁텐블로에서 2024 파리 패럴림픽 성화 봉송 주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파리 패럴림픽은 28일(현지시각) 개막해 다음 달 9일까지 이어진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